

무주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박차

설천면서 주민공청회 개최

무주군은 12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군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지질명소 발굴과 가치를 평가하고 지질공원 운영 및 계획, 지질명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설천면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개

념을 공유하고 인증 추진 결과보고와 국가(세계) 지질공원 인증효과 및 사례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게 되면 반딧불이의 고향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라며 "국가지질공원으로서 무주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8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인증에 필요한 나머지 이행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가지질공원(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도입 / 제주도, 울릉도 등 7개 지역 등록)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원으로, 무주군에서는 내구천동지역과 외구천동, 적상산, 용추-철연폭포, 향적봉, 구상화강편마암이 지질명소, 인월담과 비파담, 구월담, 파회와 수심대,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철연폭포, 향적봉, 구상화강편마암 등을 지질공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공약이행·주민소통 최고등급 받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군구청장 평가 결과

진안군은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2일 170여 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5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5

개 항목으로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절대평가를 진행하여 진안군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안군은 공약이행률 80%로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써왔다. 가장 먼저 농촌버스 요금단일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였고, 수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터져버렸던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쓰레기를 안버리고 인분고 안태우는 3NO운동과 제조제 안쓰는 우렁이농법을 도입하는 등 창조적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치적과 실적보다는 주민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주민 행복과 진안발전을 위한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주민배심원제 등 소통 강화 121개 공약 목표달성도 높아

박성일 완주군수는 2년 연속으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12일 완주군은 2016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에서 박성일 완주군수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약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주관으로 평가했다. 공약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완주군은 두 번에 걸친 주민배심원제 개최를 통해 1차, 121건의 공약을 결정하였고, 2차는 대안위 공약사업 중 12건의 정책 사업 완성도를 높여왔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배일 완주', '트네상스 완주', '농도피아 완주' 등 3대 핵심정책 개발로 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성의 실천력 향상과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공약 완료도 분야에서는 총 121개 공약을 대부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와 공약예산 편성에 힘을 기울였고, 공약관련 조례 12건을 입법화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특히 완주군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요금단일화, 500원택시, 통학택시, 콜버스 등 교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가족문화 교육원 건립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 및 복지기반 마련과 테크노밸리 1단계 100% 분양 및 전복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공약이행도를 통해 15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갔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완주군이 성과와 완성도가 돋보이는

이유는 철저히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 가면서 '주민배심원제'와 '공약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약실행을 투명하고 구체화시키는데 힘을 쏟는 한편, 27건의 정책공약을 별도 관리해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조정하한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완주군은 공약목표 달성도와 소통정책 외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이어나가는 2단계 로컬푸드와 3단계 로컬푸드 정책이 이번 평가의 최고득점을 받은 단체장으로 울산남구의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발표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행정 중심의 완료보다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공약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

완주군은 12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새로이 확대 구성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허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전면개정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기존에 활동하던 읍·면지원연대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 및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 헌찬 다짐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발대식은 식전공연, 위촉장 수여, 대표 선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주관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달체계 및 추진방향, 역할'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읍·면 협의체는 읍면당 평균 20여 명으로 지원봉사자, 이장, 부녀회장, 복지기관 실무자등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그리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인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일 군수는 "지역복지를 위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외되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자"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산림분야 드론 활용

진안군은 각종 산림사업장 점검 및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현장에서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 임야면적은 5만8,298ha로 면적의 76%에 달하고 급경사가 많아 병해충 예방 및 사업장 점검, 초기 산불 진화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지난날 무인 항공기(드론) 2대를 구입하여 산림사업장 점검 및 감시활동에 투입은 물론 다양한 산림행정에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발생 시 산불현지 상황을 본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초기 산불진화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병해충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

용하면 단시간에 광범위한 범위를 관찰할 수 있어 산림행정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주최 세계적인 키예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클래식 열린 음악회가 11일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진안군민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

키예프 오케스트라 초청 클래식 열린음악회 성황

세계적인 키예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클래식 열린 음악회가 진안군 주최, 아리랑심포니, (주)아리랑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지난 11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지쳤던 군민들에게 한 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답고 정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마이홀 객석을 가득 메운 군민들은 수준 높은 교향악단의 연주 못지않게 수준 높은 감성태도를 보여 진안군민의 문화 예술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린 계기를 마련했다. 주영위의 깔끔한 지휘로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드야를 시작으로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과 소프라노 강제인의 주옥같은

음성이 피아니시모로 울려 퍼질 때는 마이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죽여 감성을 공유하며 나누었고 폭넓고 매우 안정적인 소리를 가진 바리톤 서동민은 우뚝 솟은 마산만공이 나 우렁찬 연주를 들려주었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가 새롭게 편곡한 반달과 엄마야 누나야, 아리랑 등을 연주 할 때는 수많은 관객들이 향수에 젖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번 음악회의 마지막 부분은 바이올린 영재 이은서의 협연으로 장식되었는데 고난도의 연주력을 요하는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은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2016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어 통역, 행사 의전 및 안내, 보건의료, 경호(안전)으로 총 5개 분야의 모집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 및 중국인(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배정된 근무 기간 동안 성실한 활동이 가능할 자로 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국민은 지난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공지사항에서 '2016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을 클릭한 후 '참가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eyyoung679@tpf.kr)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기본 소양교육과 직무관련 현장교육을 통해 개인별, 활동분야 별 행동 요령을 습득한 후 현장 배치된다. 또한 '2016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명의의 봉사활동 참여 인증서와 봉사활동 시간인증



서 발급, 유니폼 및 ID카드 지급, 식사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2016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2016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는 8월 9일(화)부터 8월15일(일)까지 2차 3일 동안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중국인 및 내국인 약 1만 명 이상 참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풍력발전단지조성 중단 촉구 결의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원의 5명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 26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직자분들도 소신있고, 책임있는 보고로 군정을 위해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점검과 각종 수리시설 점검, 하계방역 철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김용문 의원(사진)의 5명 의원의 발의로 풍력발전단지 조성 중



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민간기업이 장수군에 백두대간 및 금남호남정맥을 따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번암면 지리리, 국포리, 장수읍 덕산리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 등을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민들의 민심을 악화 시키고 있다"며, "자연보존과 생태계 복원과 가시시대 문화유적인 봉수 21개소, 산성 7개소, 고분 239기, 아철장 28개소 등을 발굴하여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산 지역에 풍력발전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문화재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돌리사

장수의료원, 주민건강검진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40세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 세대주 및 만 40세~만64세 세대원)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된다. 보건의료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검진을 실시, 장수군내에 암검진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상양 원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063-350-3123)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접수

장수군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3차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장수군내 거주중인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주민자치센터)이며 기존 난방용 보일러 교체 혹은 신설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산림복지과에서 현장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장수군 사업 잔여량은 총 33대(주택용 30대, 사회복지용 3대)이며 해당 사업비는 4백만원 한도에서 주택용은 보조 70%, 자부담이 30%이고 사회복지용은 보조100%로 자부담은 없다. 관심 있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읍·면 산업계 및 군청 산림복지과(063-350-2445)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한농연 가족대회 성료

(사)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회장 김한국) 가족대회가 12일 이항로 군수, 박명석 의장,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40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우수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을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도 진안군한농연과 자매결연을 맺은 상주시 한농연 회장 및 임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가족대회를 축하하며 함께 무의를 다짐으로써 대회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김한국 한농연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농촌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이 존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좋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며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항로 군수는 "거대한 수입개방 물결속에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지켜오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물놀이 안전교육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1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학생과 직원 30명에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물놀이 안전교육은 "여름철 물놀이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잘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구명환을 활용한 인명구조 방법체침, 익수환자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요령등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수난사고의 대부분은 물놀이 계절인 7~8월에 발생하는데,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응급처치방법을 배워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